

정인화 광양시장, 내년 국비 확보 '광폭 행보'

LOCAL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방문...지역 핵심 현안 건의 공립 과학관·보훈회관 건립·전통시장 주차 문제 등

광양시가 내년도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발 빠른 국비 확보 대응에 나섰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정 시장은 박정환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문화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기후환경예산과장

등을 만났으며, 시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공립 광양 소재 전문 과학관 건립,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광양항 제품부두 전면항로 증심 준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스마트관망 관리사업 6건이며, 총 사업비는 1355억원 규모다.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정 시장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면담하고 교부세과

를 찾아 광양항 교통수요 증가와 민간사업자 터미널 폐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한 핵심 내용은 항만 소재지 특성상 대형화물운송이 빈번해 발생하는 도로·교량 균열 등 유지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항만수요(항만물동량별 가중치) 지표 신설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민간 버스터미널 폐업에 대응하기 위

한 기초지자체 버스 재정지원 확대·지원일몰 기간 연장 두 가지다. 정인화 시장은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까지 국회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국가예산안은 8월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연말까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광양=김규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장흥, 적조 방제 모의훈련 항토 살포...현장 대응 강화

장흥군은 여름철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적조 방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조 발생 시 예찰·예보·방제 등 각 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훈련은 '적조 정보 발령'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항토를 해상에 살포하는 실전 방제 절차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장흥군 해양수산과를 비롯해 해양수산과학원(장흥지연), 안도해양경찰서(회진파출소), 어촌계(7개소) 등이 참여했다. 훈련으로 적조 확산 상황에 따른 신속한 항토 살포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담양, 중년 인문 프로그램 운영 은퇴 후 인문학 등 참가자 모집

담양군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후원하는 2025 중장년 인문 프로그램 '담양연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은퇴 후 인문학'과 '오픈북 큐레이션'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두 프로그램은 은퇴 후 인생의 전환점에 놓인 중장년(40~60대)들이 삶을 되돌아보고, 제2의 삶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일반적인 인문학 강연이나 일회성 체험에서 벗어나 자기 성찰과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 기록, 표현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은퇴 후 인문학'은 동화, 고전, 소설, 시 등 다양한 문학 장르를 중심으로 삶 전반을 다룬 다섯 가지 주제에 관해 작가들의 강의와 체험이 진행되는 참여형 인문 강사로, 오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5회차로 인문학기숙사에서 진행하며 회차당 중장년 15명을 모집한다. '오픈북 큐레이션'은 특정 주제에 맞춰 도서를 선별하는 북큐레이션에 전방향독서법을 적용해 나만의 책장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10회차로 진행하며, 회차당 15명을 모집한다. 담양=조성수 기자 jnwnews@

김영록 지사, 고흥 양리마을 찾아 좌담회 현장 주민 목소리 청취... "지속가능 마을 발전 정책 개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고흥 양리마을을 방문해 지역 주민과 현장 좌담회를 열어 마을 현안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지난 14일 열린 좌담회는 도지사가 직접 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현장 중심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리마을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마을 주민 30여명이 참석해 평소 품고 있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고흥 양리마을은 2년 연속 전남 대표 축제로 선정된 '고흥유지축제' 개최지로, 주민 대부분이 유자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은 매년 11월 축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곳곳에 벽화를 조성하는 등 스스로 마을 콘텐츠를

를 만들어가며 농촌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리마을은 지난 2021년 유자나무가 한해 피해를 입으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김영록 지사는 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도 차원의 복구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후 전남도의 지원과 주민들의 자발적 복구 노력 덕분에 유자농가는 대부분 회복됐고, 이를 계기로 마을은 단순한 유자 생산을 넘어 관광, 문화, 체험을 결합한 마을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양리마을처럼 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사례는 전남 농촌의 미래를 보여준다"며 "좌담회를 통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4일 공영민 고흥군수와 함께 고흥 풍양면 양리마을을 방문,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계해 더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내 모든 마을이 양리

마을처럼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전마을을 찾게 될 것이다"며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olbul@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여수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총력 시민추진위 위촉·사실조사원 간담회

여수시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 재조명을 위해 시민추진위원회 정기회의와 사실조사원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나섰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여순 10·19사건 홍보관에서 제4기 시민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새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경명 시장은 "위원 여러분께서 여순 사건이 남긴 과제를 풀아가는 데 중심점이 돼 주시길 기대한다"며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 희생자와 유가족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열린 사실조사원 간담회에서

는 희생자·유족 면담, 증언 채록, 자료 수집 등 현장 활동 현황과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현재 사실조사원 10명이 피해 신고 접수와 면담조사, 사실조사 결과서 작성, 유족 생활보조비 접수 등 실무를 맡고 있다. 시는 특히 이달부터 연말까지 국가기록원이 발굴한 형무소 수감자료 가운데 여수 지역과 관련된 495건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추진한다. 정 시장은 "여순사건은 지역사회의 아픔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번 직권조사가 진상규명의 전환점이 되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곡성, 외국인 근로자 보호 '불시점검' 인권 증진·노동환경 개선 열사병 등 건강피해 예방

곡성군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람을 위한 정책, 권리를 위한 실천'이라는 취지로,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잦은 극지성 호우 속에 옥외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곡성군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보강받고, 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실태를 세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번 불시점검은 대통령 지시사항인 '취약계층 보호·옥외 근로자 안전 확보'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열사병·탈진 등 건강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고용농가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곡성군은 점검을 통해 근로자 쉼터 제공 여부, 폭염시간 작업조정 여부, 수분·염분 보충 제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지도·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은 지역 농업을 함께 일구는 소중한 이웃이자 동반자"라며 "이들의 권리와 안전이 지켜지는 곡성이 되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